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음을 느끼며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매년 우리 위원회는 무연고 사형수 묘를 방문하여 이분들 영혼의 안식을 빌며, 또한 묘를 살피고 손질합니다. 매년 후원회원분들과 함께하였는데 전염병의 위험으로 작년에는 조용히 신부님들,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더 곱씹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조차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데, 봉사자분들이 직접 염도 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사형수의 시신임을 알고 인부가 묘파기를 거부하면, 직접 팔 걷어들고 삽을 쥐었다고 들었습니다. 연이 없지만, 매년 백여 명의 후원회원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친인척이라며, 동향이라며, 혹은 같은 학교 동문이라며 연을 만들고 편을 만들어 가르는 세상입니다. 다른 편은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요즘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태에 아무 연이 없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은 이의 무덤을 찾아가 하느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모습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며,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위령의 날에 읽는 로마서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로마 5,8)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세주를 기억하며, 죄인인 우리가 죄인을 위하여 서로 기억하고 기도하고 위로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혹은 어떠한 보답이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따르기 위해,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담장 안의 형제, 자매를 기억합니다. 더 자주 찾아보지 못함에 대해 죄송함을 가지고 곧 들어갈 수 있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립니다. 코로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힘들고 외로운 형제자매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죽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버림을 명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마저도 하느님과 우리의 끈을 끊을 수 없음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데 어찌 전염병과 담장이 하느님 안에서의 우리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병으로도, 담장으로도,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죄인이길....

서훈배 신부_서울구치소 담당

세상에서 가장 운수대통한 사나이가 있다면 아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오른쪽에 달린 강도를 쫓을 수 있으리라. 그는 삶의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과 만남을 확실한 구원의 기회로 잡은 것이다. 주님은 겸손하게 용서를 청하는 사람에게 당신 자비에 결코 인색하지 않으신다.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셀라”(시편 32,5)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 죄인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귀에 쟁쟁한 이 외마디 기도는 형장에서 마룻바닥에 갈라지는 파당! 하는 굉음과 함께 사라져간 어느 사형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이다. 마지막 우는 새의 울음소리는 아름답고 마지막 가는 사람의 말은 진실하다고 했던가....

자신의 전 존재를 송두리째 내던지면서 토해낸 이 한마디는 진실하고 절실하게만 느껴진다. 사제로서 바라본 그 형제는 이 시대에 몇 안 되는 속죄자였다. 지난날의 죄에 대한 뼈아픈 참회이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지금까지 하느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근본적인 회개가 속죄의 삶을 살게 했다. 프란치스코 성인을 닮길 원한 그는 자기 삶을 오로지 남을 위해 희생과 속죄의 삶이 되길 갈망했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 형제가 바친 속죄의 시간은 짧았다. 동료 형제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보속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사형집행은 우리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의 최후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단순히 인간적 생명의 연장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으로서 속죄의 삶을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애초엔 자기 말대로 아픔을 모르는 죽은 인간, 무지의 인간이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을 알면서 아파하는 인간이 되었고 고뇌하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끊어버리는 큰 결단성을 가지고 생애의 깊은 강을 건넌 것이다. 그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었지만, 매 순간 끊임없는 노력의 자세로 속죄자의 삶으로 매진하였다. 단식과 기도, 작은 희생, 극기의 노력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 나갔다. 감옥의 좁은 공간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갈망까지 묶어 둘 수는 없었다. 하느님께 대한 열정은 뜨거웠고 그 갈망은 샘물처럼 솟아올라 그의 삶은 활력으로 빛나며 자유와 기쁨이 넘쳤다. 그와 마주 앉으면 신선한 활력이 전해져 옴을 느낀다. 광활한 광야에서 하느님만을 찾는 세상의 속죄자요, 구도자로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느님께 돌아설 수 있게 된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한 크리스천 적 속죄행위는 세상을 구하는 활력이고 교회에 생명력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다면 평생을 기쁘게 속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형제들의 바람을 승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의 우리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남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희생했느냐가 내 삶의 무게와 의미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1990년 10월에 발행한 <빛> 간행물에 실린 서울구치소를 담당했던 서훈배 신부님의 글입니다.
맞춤법은 현재 사용하는 표기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형제님들 덕분입니다

임춘희 마리아_서울구치소 최고수 봉사자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간직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디든 나를 요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그동안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꽃 피는 봄에 그리고 알록달록 물드는 가을에 여행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여행의 꿈은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지만, 봉사활동은 막연했습니다.

우선 성당에서 반장을 맡아 구역 신자분들과 얼굴을 익혀 나가며 혼자 고민하던 중 친구 권유로 교정 담당 수녀님을 만났고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수녀님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덜컥 걱정되었지만 모두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 잠시의 고민도 해결되었습니다.

최고수 형제님과의 첫 만남은 수녀님과 다른 봉사자가 함께 있었지만 ‘우리와는 뭔가 다를 거야’라는 막연한 선입견으로 몹시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수녀님과 우리를 스스럼없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 나의 염려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형제님들을 만나면서 성경 말씀과 기도예 폭 빠져 계시는 모습에서, 제한된 곳이지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아~ 나는 정말 무늬만 신자였구나’ 새삼 깨닫고 반성하며 늘 형제님들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옵니다.

코로나가 길어져 모든 생활에 나태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도 거의 매일 미사 봉헌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음은 모두 형제님들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형제님들을 통해 계으른 저에게 기도하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랫동안 뵈 순 없었지만 미사 중에 기억하며 봉헌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신부님 묵상 글에서 마음에 와닿는 글을 같이 나누고 싶어 올립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을 나태함이라고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평온함이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용기 있는 삶을 향해 한 발씩 내디디며 어려운 시기 건강 잘 관리하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길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나답과 아비후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나답과 아비후는, 엘아자르, 이타마르와 더불어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사제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첫 사제의 임직식에 관하여 레위기 8장에 그리고 첫 제사에 관하여 레위기 9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사제 서품식과 첫 미사가 거행된 뒤,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레위 10,1-2).

이 사건이 얼마나 갑작스러웠는지,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레위 10,3)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사건을 적은 구절만으로는 자세히 알기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불을 이용한 제사였기에, 불을 잘못 다루다가 커진 불길에 죽임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또한 일어난 장소가 지성소였기에, ‘주님의 진노’(레위 10,6), ‘주님께서 불살라 버리신 자들의 죽음’(레위 10,6)이라고 간주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화재 사건인데, 과학적 조사 방법이 없는 사회였기에 하느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불에 대해서 부주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온 불을 주님 앞 제단에서 향로에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퍼서 그 향을 주님 앞에 숯불에 놓아야 한다(레위 16,12-13)는 구체적인 규정을 적어두는 것과 나답과 아비후가 저마다 ‘제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웠다는 서술을 참조해보면, 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듯 보입니다. 향로, 향, 숯불에 대한 구체적 진술 뒤 “그래야 그가 죽지 않는다”(레위 16,13)는 구절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한 이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정해진 때(탈출 30,7-8)가 아닌 ‘아무 때’나 들어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레위 16,2).

사건 후 바로 이어진 하느님의 첫 마디는 “너와 너의 아들들이 만남의 천막 안에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마시면 죽을 것이다.”(레위10,8-9)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술에 취한 채, 정해진 때가 아님에도 지성소에 들어가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불을 피웠고, 이로 인한 화재로 사고를 당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함은 구별, 분리를 의미합니다.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구별 지음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축복받은 것,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다루지 않고, 무의미하게 혹은 속되게 다루면, 더 이상 그것은 거룩함을 띠지 못하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로 성스럽게 ‘구별’된 임직식 후 아론이 드린 첫 제사 때에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불을 축복의 불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굳기름을 삼켰다. 온 백성은 그것을 보고 환성을 울리며 땅에 엎드렸다”(레위 9,24). 이 ‘축복의 불’은 이어진 아들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심판의 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살펴보면 그러합니다. 돈, 재물, 재화는 올바르게 사용되고 적절하고도 적법하게 돌아갈 때, 번영을 이루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선은 축복이며,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이 이용하려 하고, 더 가지려는 욕망을 품고,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면 이는 자신과 자신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를 망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 혹은 마음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소중히 다루지 않고 내 욕심으로 다루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느님께서 불러 성별(거룩히 구별하여 둬)한 사제라는 점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직무를 거룩하게 다루지 않고, 술에 취한 채 허투루 다루었다는 부분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고, 여러 성사 생활과 기도 생활, 사랑의 실천을 통한 거룩한 삶의 증언을 얼마나 고귀하게 다루고 있는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면서(창세 1,28) 맡기신 이 자연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축복이었던 이 자연의 생태계가 이제는 우리의 무분별한 개발과 욕심의 결과로 폭염과 폭우, 폭설 그리고 한파, 전염병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연재해’, 우연한 ‘자연변화’로 치부할 것인가요.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김일호 미카엘 / 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혼자 살기도 어려운 세상이지만 애석하게도 사람은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왕 더불어 사는 존재라면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신뢰 속에서 기쁘게 살면 좋겠는데, 타인을 신뢰하며 더불어 사는 건 상당한 인내와 어려움이 필연 됩니다. 이미 불신이 사회 전반에 뿔어 있고 다른 누군가는 동료가 아닌 경쟁의 대상이 되며 무지막지한 자본의 탐욕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야박한 이기심을 가슴 깊게 심어 둡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동행은 커녕 그냥 걷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더욱더 양보하려 노력해야 하며, 내 것을 나누는 희생의 노력은 필수 요소가 됩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자의 자립을 위한 무담보 대출 은행으로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심사에 합격한 대상자와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창업자금 대출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창업자금 대출 약정서에 ‘갑’과 ‘을’이 아닌 ‘동’과 ‘행’으로 험한 세상 함께 이겨내 보자는 의미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자금 지원 후 일부는 ‘동행’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 갖고 있던 마음이 변해버렸는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 연락이 두절 되기도 합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서로가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동행’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움이 큼니다.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갈 수 있겠느냐?’(아모 3,3)

이미 계약을 맺으며 ‘동’과 ‘행’으로 서로가 함께 잘살아보자고 굳은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기쁨과희망은행은 언제나 ‘잠시’ 떠난 분들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은행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지를 늘 성찰하고 살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은행은 더불어 같이 살자는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숨고 싶고, 한계에 다다라도 괜찮습니다. 대출자들 한 분 한분의 노력과 고통, 인내와 눈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쁨과희망은행이 늘 동행이 되어드리고 함께 걷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서로의 단절과 무관심이 우리에게서 더 큰 고통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회개를 끝없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대출자분들을 끝없이 기다리고자 노력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라파엘 신부님.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정사목에서 보내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정사목과 교정사목 가족, 관련된 모든 분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기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행복한 아기입니다.

이번 9월 26일 생후 1년 6개월이 됩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손으로 칠한 가방을 만들었고

아들은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진도 함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23.

미셀 올림

* 수용자 가족 지원을 받는 가족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하다 소망교도소로 이송된 형제님의 아내가 김도훈 라파엘 신부님께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12월까지**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안내

- ▶ 1주 월요일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 2주 월요일 / 중서울 길음동성당
- ▶ 3주 월요일 / 동서울 광장동성당
- ▶ 4주 월요일 / 서서울 양천성당

오전 10시 30분

* 2022년부터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가 매주 지역별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 수용자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9/14~10/13)

2021년 9월~10월에는 김영선 아네스, 남순강 베로니카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최은영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린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